

미분양 증가  
경기 침체 늘  
원자재값 ↑

# 지역 건설업계 '붕괴 위기'

### 연초부터 시멘트·철근값 인상... 채산성 악화 우려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 건설업계가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난과 건설경기 침체, 원자재가격 급등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시멘트와 철강업계가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 초부터 일제히 가격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채산성 악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9천429세대에 달한다. 이는 전달인 10월(9천215

세대)에 비해 214세대 늘어난 것으로, 광주 등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미분양주택 매입 등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 등 지방 주택시장의 분양률이 통상 분양률(70~80%)의 절반을 밑도는 30~40%에 그치면서 업계의 초기 자금운영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상당수 주택건설업체들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증대금 무이자·분양가 할인 등을 '올벼 겨자 먹기' 식으로 도입하면서 자금운영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하도급을 맡은 전문건설업체도 장기어음 결제가 많아져 극심한 자금난에 직면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붕괴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지난 9월과 10월에 8곳의 일반·전문건설업체가 부도처리된 데 이어 11월 이후 도산한 업체가 10곳을 넘어선 등 '부도 도미노' 현상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와 철강 등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쌍용양회·동양시멘트·성신양회 등

'빅3' 업체가 내년 1월부터 일제히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시멘트 가격을 현행 t당 5만3천원에서 6만2천~6만3천원으로 올릴 예정이어서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가 가중될 전망이다. 또 시멘트의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 업체들이 구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공사중단 등 건설현장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철근도 국내 최대 봉형강 업체인 현대제철이 최근 가격인상을 확정하는 등 내년 초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국제유가 급등도 공사가원가 상승으로 연결돼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협유통아카데미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26일 농협 회의실에서 농협대학 위법량 교수를 초청, '21세기 환경변화에 따른 농산물 마케팅 필요성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유통 아카데미'를 열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 금호, 내년 매출 25조

### R&D·교육 집중 투자 '500년 기업 기반 구축'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내년 매출 25조원, 영업이익 1조9천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호아시아나는 26일 내년도 경영계획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총 투자액은 지난해 2조2천760억원보다 28.3%가 늘어난 2조9천200억원으로 책정하고 연구개발·교육·IT 분야 사회공헌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금호아시아나는 내년에도 경영화두를 '500년 기업 기반 구축'으로 삼고 대한항공 인수 등을 통한 사업확장과 더불어 아름다운 기업문화 창달에 적극 나선다는 구상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그룹의 핵심성장동력인 건

설·항공·타이어·석유화학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인 물류와 관광레저사업 중심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올해 금호타이어·금호건설·금호석유화학·금호고속·아시아나레저·금호렌터카 등이 중국·베트남·사이에 공장 및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해외진출을 추진했다.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 내년에도 아시아나항공이 파리 노선에 취항하고 베트남에 타이어 공장을 준공한다.

또 대우건설의 알제리 부이안 신도시 및 하노이 신도시 개발, 금호고속의 중국 및 동남아 운송 네트워크 확대, 금호렌터카의 중국 및 베트남 영업망 확충 등 금호아시아나의 해외시장 공략이 가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수출 中企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 936원

원화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손익분기점 수준 원·달러 환율은 1달러 당 936원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년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출 채산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원화 강세의 영향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보험공사는 26일 발간한 '2007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수준(936원)은 2년 전에 비해 169원 낮아졌으며 적정이익 확보 환율수준도 982원으로 역시 196원 낮아져 원화 강세에 버티는 힘이 크게 개선됐다.

원·엔 환율 역시 손익분기점 환율이 100엔당 836원, 적정이익 환율은 878원으로 2년 전보다 각각 192원, 209원이 개선됐다.

연협뉴스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12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심상인 라이텍코리아 대표

## LED 신호등 e마크 인증

### 산학연 연계 특허 등 24건

### 직원 9명 내년 매출 80억



LED조명 제조업체인 라이텍코리아(광주시 북구 월출동 첨단산업단지·대표 심상인·46)가 26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는 '12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라이텍코리아는 탄탄한 산학연 연구네트워크 구성, 활발한 부설연구소 활동 등을 통해 신기술과 제품개발을 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라이텍코리아는 일찍부터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전남대·광주대 등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해 특허등록 11건, 특허출원 4건, 실용신안등록 2건, 디자인 출원 2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심상인 대표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ISO9001, ISO1400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e마크, 루미셀 EK(전기용품안전)인증 등을 획득해 품질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향후 5명의 LED 조명연구소의 전문연구원들을 풀가동, 신제품 연구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6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12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시상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주요사업장, 심상인 라이텍코리아 대표, 박춘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라이텍코리아의 생산품으로는 LED 조명등을 비롯해 경관조명, 가로등 조명기, 교통신호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LED 교통신호등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e마크 인증을 획득할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또 LED 도로안개 유도등도 안개센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 도로안개등과 유도등을 동시에 제어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심 대표는 "2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쳐 지난 11월 빛을 본 루미셀 제품은 EK인증 획득한 이후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아 설계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이 제품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 증축과 함께 5~7명의 인력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명의 직원을 보유한 라이텍코리아의 매출은 2005년 13억7천300만원, 2006년 7억7천800만원, 2007년 16억5천만원에 이어 내년 8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소비자의 힘' 강해진다

### 내년 소비자단체 소송제 시행 기업 위법행위 금지·중지 요청

올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된 데 이어 내년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과 소비자단체 등 13개 단체를 적격 단체로 지정했으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소송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확충에 나서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이어서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맞서는 소비자들

의 '파워'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 시행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기업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고 금전적 피해의 구제는 불가능하지만, 피해보상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연협뉴스)

## 광주상의 회장에 이승기씨

### 박흥석씨 후보 사퇴... 연초 상공의원 총회서 추인

이승기(56·상임의원·사진) 삼승건설 대표가 광주상공회의소 후임회장을 맡게 됐다.

광주상의는 이 대표와 함께 후임 회장 선거에 임후보한 박흥석(62) 럭키산업 대표가 26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이 대표가 향후 1년 3개월 동안 후임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상의는 늦어도 내년 1월초까지 임시 상공의원 총회를 열어 이 대표를 상의회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박 대표의 후보사퇴 기자회견 소식을 접한 뒤 "광주상의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린 박흥석 회장의 뜻을 받들어 상공의원들과 앞으로의 일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이기도 한 박 대표는 이날 광주상의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회장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회장선거에 후보로 나서 경쟁을 벌였던 이승기 후보가 여러 면에서 능력이 탁월한 만큼



광주상의 회장이 되면 잘 할 것으로 생각해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아울러 광주상의의 회장 직무대행직도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대표가 회장 직무대행까지 사퇴함으로써 광주상의의 부회장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의원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장업무를 수행할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고객감동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

# 애니체

Anych

062-942-1814, 1816

# 베트남 국제결혼

##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본사만의 장점

- 1. 베트남에서 100여명의 미모와 재능을 갖춘 여성들이 있습니다.
- 2. 본사만의 베트남 현지에서 100여명의 미모와 재능을 갖춘 여성들이 있습니다.
- 3. 한국에서 100여명의 미모와 재능을 갖춘 여성들이 있습니다.
- 4. 베트남에서 100여명의 미모와 재능을 갖춘 여성들이 있습니다.
- 5. 한국에서 100여명의 미모와 재능을 갖춘 여성들이 있습니다.
- 6. 베트남에서 100여명의 미모와 재능을 갖춘 여성들이 있습니다.

800만원대로 배필을 찾아주세요

아오자이국제결혼

062)232-8966  
010-5256-8966